

# 경주종친회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울산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경주청장년회는 지난 5월 13일 수백 년이 된 유언정의 명물 은행나무 아래에서 200여명의 축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종친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는 권혁만 총무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조상소망배, 공로패, 감사패 증정, 회장인사, 격려사, 축사, 신임회장 인사,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체육대회가 시작되기 전 권영길 회장을 비롯한 권오신 윤곡서원 운영위원장 등 후손 20여명은 경덕사(景德祠)에서 경건하게 헌작하였다.



권영길 회장,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권혁무 전 윤곡서원 운영위원장 등 주요인사

주요 인사로 권영길 경주종친회 회장, 권택택 경주종친회 고문(호계서사위원장), 권오신 윤곡서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권혁광, 권학구, 권오길, 권혁무 경주종친회 고문, 권혁조 봉산제위원장, 권용진 사정공 중손, 권승혁 경주장년회 회장, 권병혁 안강, 강동 장년회 회장, 권병철 경주청년회 회장, 권택전 안강청년회 회장, 권용원 국당 문중 주손, 권희탁 두류 문중 대표, 권상택 두동 문중 대표, 권영남 구길 문중 대표, 권영걸 입실 문중 대표, 권혁무 월산 문중 대표, 권오섭 평동 문중 대표, 최병준 경상북도의원,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원, 김동해 경주시의회 의원, 정성룡 경주시의회 의원, 이승환 전 장군(국군기무사 전역), 권행환 대종회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시조 태사공 신도비, 윤곡서원 옆에 자리하고 있다.



체육대회 전 먼저 시조 태사공 죽림공·귀봉공께 고우



해금과 가야금 연주



계림국악예술원 권정(오른쪽) 원장 등 공연



공로패 증정



웃놀이

을 중심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최병준 도의원은 감사패 주셔서 고맙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너무 과분하다. 권오신 위원장이 경상북도, 경주시 등으로 임청나게 뛰어다녔다. 앞으로 윤곡서원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동해 시의원은 안동권문은 최고의 명문가이다. 많은 어른신 만나 뵈서 고맙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오늘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란다. 정성룡 시의원은 제가 연일찌시네 안동권씨 외손이다. 외가에 온 느낌이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한일의원 교류 차원에서 참석하지 못해 축전을 보내왔다. 화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안동권씨에 신라 왕성으로 경주김씨이다. 고려 후삼국 대업에 크게 기여하여 안동권씨 위상이 대단히 높다. 가정 화목하시고 조상의 음덕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란다. 권오현 사무국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경과보고에서는 경주종친회는 1978년 4월 발족하여 격년으로 화수 총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2017년에 3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화수총회를 열었고, 코로나 6년만에 21회 화수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각 문중별로 웃놀이 경기를 했다. 또한 초경 가수 공연과 노래자랑을 끝으로 오랜만의 개최된 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권상렬 전 경주청년회장(2014~2015)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0~40대의 젊은 청년회원들이 많은 곳이 경주라고 소개했다. 경주는 청년회와 장년회가 분리되어 있고, 청년회는 57세까지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래서 회원 37명 중 30대 초반과 40대가 가장 많아 늘 생기고 활기가 넘쳐 모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병철 경주청년회 회장이 역점 사업으로 신입 회원 영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가장 어린 회원이 88년생이라고 자랑했다. 그럼에도 요즘은 20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안동권씨 무슨 파, 몇 대손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도 거의 없고 보학에 관심도 없어서 종친회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경주는 경주종친회를 중심으로 하여 경주장년회와 경주청년회를 비롯 안강청년회까지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조직이 젊고 탄탄하다. 안동권씨 연일문중과 연일향교 권혁성 전 교는 축하 화환을 보내 6년 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축하했다. 권행환 편집국장

먼저 식전 행사로 권정(37세, 두동문중 울동) 계림국악예술원 원장 등이 가야금과 해금을 연주하며 도라지 타령과 섬마을 선생님과 내 나이가 어때서 가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어서 개회선언과 함께 내빈 소개 후 각각 경주종친회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공로패를 증정했다. 권오길 제20대 종친회장(2016~2017)은 여러 여건에서도 종친회를 크게 성장 발전시키고 승조 효친의 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헌신적으로 한 공로이다. 권혁무 전 윤곡서원운영위원장은 윤곡서원의 운영과 정비에 크게 기여하고 선조사적을 현양한 공로이다. 권혁승 안동권씨 경주장년회 회장은 평소 종친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 공로이다. 또한 윤곡서원 운영에 도움을 준 최병준 도의원 등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했다.

권영길 경주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좋다. 하늘도 우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다. 인류사 동서고금에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강물은 마르지 않고 흐르듯 안동권문의 역사도 시조 태사공부터 지금까지 변변히 흐르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변화가 많다. 코로나19로 더 많이 변했다. 이웃이 소동이 안 되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촌이 길가도 모르는 세상에다. 우리 안동권문만은 승조사상에 투철하여 세태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경주씨씨, 경주씨씨, 경주김씨와 함께 조상님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잘 노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은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께서 윤곡서원을 위해 많이 도와 주셨다. 윤곡서원은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과 죽림공(竹林公 權山海, 1403~1456)과 귀봉공(龜峯公 權德隣, 1529~1573)을 모시는 서원이다. 또한 시조 태사공을 배향하는 유일한 서원이다. 차가 막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다. 신라 경주 320여개의 성씨 중에 신라 성씨가 65%인데 안동권씨가 그중 4성에 들어간다. 이는 선조들이 유배와서 100년 만에 처음 대과에 급제한 귀봉공의 높은 학문과 나라 사랑 덕분이다.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안동권씨 문중에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권영길 회장

## 안동권문의 며느리 이경자 문학박사 제55대 사임당 추대



제55대 사임당 추대된 이경자 박사와 김천주 이사장



제55대 사임당 이경자 박사와 부군 권혁홍 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55대 사임당 추대식이 5월 15일 14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권혁홍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권혁홍 대양그룹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사임당과 가족 등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영 공동회장의 사회로 주악연주, 역대 사임당 입장, 제55대 사임당 입장, 신사임당 수상사 표창, 추대사, 축사, 부군의 인사, 축하공연 순으로 개최되었다.

김천주 이사장은 추대사에서 지금 사임당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국가의 기본은 가정이다. 그런데 다 무너졌다. 엄마, 여성들 사임당의 후예들이 잘 못해서 그랬다. 여성이 떳떳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아동교육과 유아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바로 선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우는 분이 제55대 사임당이 됐다. 꼭 되실 분이 됐다. 우리 여성들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내, 주부, 예술인이 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말했다.

권해욱 회장은 축사에서 이경자 박사는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자 대양그룹회장으로서 안동권문의 며느리이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량있는 박사이다. 한국 여성의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어 여성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권혁홍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늘 사임당에 추대되는 이경자 박사님의 부군 되신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님은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두 번 째 역임하고 계시고, 제직업계를 이끌고 계시면서 회사는 매출 2조원으로 중소기업 중 1위이다. 제55대 사임당 이경자 박사님은 대양그룹 수석부회장도 맡고 계시고 60세 넘어 아동교육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다. 제55대 사임당 추대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군인 권혁홍 회장은 축사에서 결혼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다. 안동권씨 집안으로 시집와서 현명하게 집안을 이끌어 왔다.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1000여명의 임직원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임당의 내조 덕분이다. 신경쓰이는 것, 걱정거리 있으면 혼자서 해결해 주었다. 현명한 아내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였다. 딸은 일에는 탁월했고, 예술에도 뛰어났다.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임당이 되시길 바란다. 권행환 편집국장

## 안동원로원 회원 경북 울진, 강원도 동해 두 지역 나들이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가 주관하는 안동원로원(의장 권재주) 회원 30여 명이 회원 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동해시 두 지역을 나들이했다. 만 80세 이상인 원로원 회원들이 단체로 나들이를 한 것은 안동종친회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5월 18일 오전 7시 30분 안동종친회관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권용수 건국대 교수,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권중구 안동농협 상임이사의 환송을 받으며 회원들이 탄 관광버스가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문서관광버스가 탄 회원들은 버스 안에서 권기창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재주 원로원 의장, 권계동 초대 파총회장협의회 고문,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등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하였다. 이귀화 안동종친회 사무과장, 권갑년 부녀회원 등 두 사람은 원로원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한다.

관광버스가 울진군 죽변항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죽변해안 스카이라일(Skyrail)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해안을 따라 메달빛 동해바다와 주변 경관을 즐겼다. 죽변 해안을 구경한 회원들은 스카이라일 인근에 있는 '바다횃집'에서 싱싱한 회, 물 회, 매운탕 등을 곁들여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식사를 끝낸 회원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동해시의 동해 러시아대게마을 앞에 주차한 후 회원 10명만 쫓대바위를 구경하러 가고 나머지 회원들은 대게마을에서 머물렀다. 회원들은 추암 해변~데크 계단~능파대~쫓대바위~해암정~전망대~출렁다리~조각공원~소나무 숲길 등 1.5km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다.

능파대(凌波臺)는 쫓대바위와 같은 입석기둥(리파예)들을 포함한 지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쫓대바위를 비롯하여 잠자는 거인바위, 코끼리바위, 암마리바위 등 다양한 모양의 라파예를 볼 수 있다. 쫓대바위는 애국가 첫 소절에 나오는 추암 일출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해암정(海巖亭)은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沈東老)가 벼슬을 사양하고 내려와 세운 정자다. 출렁다리는 길이 72m, 너비 2.5m 규모로 6.3도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

안동에 도착한 관광버스는 권철환 회장의 자택이 있는 안동시 길안면으로 이동, 그곳에서 골뱅이 국과 국수로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딸기와 안동식혜를 먹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회원들에게 딱딱한 한 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응송한 대접을 받은 원로원 회원들은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덕분에 오늘 호강을 했다"며 모두들 고마워했다. 권철환 회장은 "오늘 원로원 회원들과 시간을 같이해서 무엇보다도 고맙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주 의장은 "오늘 행사를 치른 권철환 회장에게 한없이 고맙고 우리 회원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이니 건강에 유의하자"고 당부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 안동종친회원들 정기총회 마치고 청와대 관람

안동권씨 대종회가 주최하는 "2023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안동종친회 회원 30여 명은 5월 24일 오후 정기총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꿈에 그리던 청와대를 방문, 관람하였다. 이날 안동종친회는 청와대를 관람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을 해놓았다.



회원 30여 명은 청와대 정문 앞에서 소정의 관람수속을 마친 후 입장하였다. 회원들은 청와대 본관을 관람하기 위해 작은 정원을 지나 본관에 갔으나 아깝게도 본관 내부를 관람할 수 없었다. 청와대는 '관람환경 개선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해 내부 관람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써서 본관 입구에 부착해 놓았다.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오늘 날이 장날'이라는 말처럼 기대하고 왔으나 내부를 보지 못해서 모두들 실망하는 눈치들이었다.

체합학습을 온 초등학생들, 나들이 온 전국의 노인 복지관 어르신들, 한복으로 바귀 입은 외국인 등 수천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길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본관은 청와대 중심 건물로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을 위한 공간이다. 회원들은 본관에서 대통령 관저인 인수문(仁壽門)으로 이동했다. 이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거주 공간이다. 생활공간인 본채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가 있다. 관저를 나와 노거수 군을 본 후 곳곳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청와대 걸모습만 본 회원들은 정문으로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경복궁(景福宮)에 들어갔다. 이곳에도 많은 학생들과 한복을 입은 외국 관람객들이 많이 보였다. 회원들은 향원정(香遠亭)과 건청궁(乾淸宮) 등을 둘러보고 나서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저녁을 먹고 관광버스로 안동에 내려왔다.

청와대는 평일인데도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현장 권영건 보도부장

## 재안파총회장친목회 제 20차 회의 개최

안동권씨 재안파총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기호) 제 20차(次) 회의가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광명로(옥동)에 자리잡고 있는 '하임'식당에서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전 재안파총회장친목회 초대 회장, 권승동 전 안동종친회장, 권주연 부호장공파총회장, 권오훈 부정공파총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총회장, 권인택, 권영택 전 정조공파총회장 2명,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총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등 9명이다. 권기호 재안파총회장친목회 회장, 권세복 북야공파총회장, 권오수 전 동정공파총회장, 권혁철 신임 동정공파총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총회장, 권순현 전 별장공파총회장, 권기원 사무국장 등 7명은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이 임시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동정공파가 총회를 열어 권오수 회장 후임에 권혁철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것이다. 또 능우회원 및 능곡회원 20여

명이 오는 6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길에서 개최되는 문중대양의 현덕왕후(顯德王后) 기신제(忌辰祭)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능골의 추원루(追遠樓)도 예선이 확보되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능골에 있는 능동제사(陵洞齋舍) 등 목조건물 4채를 해체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회원들은 정담을 나누면서 한우샤브샤브로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